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툰, 웹소설) 공모전
[작품 기획 및 캐릭터 설명]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불꽃처럼		
분량	총 10화		
장르	시대극 로맨스		
타깃 독자층	전 연령층		
기획의도	동학사상을 통해 개인의 변화를 넘어 사회변화를 꿈꾼 젊은이들의 사랑과 인생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보여준다. 희망이 스러져 좌절이 되어도 지치지 않고 젊음을 바쳐 대의를 위해 희생한 선조들의 자랑스런 모습을 기록하고자 한다.		
작품요약	1894년 고부 출신의 주학, 주명, 업동, 그리고 김제의 인혁의 삶이 동학혁명 속에 얽혀 들어간다. 주학과 주명은 전라도 고부의 가난한 양반 집 남매이다. 주학은 과거에 급제해 가문을 일으켜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주명은 그런 오빠를 위해 집에서 정해준 부호 가문의 인혁과 결혼을 한다. 주명은 오빠가 소실로 삼으려는 몸종 업동을 친구처럼 여겨 시댁으로 데리고 간다. 그러나 사실 업동 역시 주학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인혁은 동학교전인 동경대전을 읽고 동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고부 군수의 학정에 봉기를 일으킨 동학 접주 전봉준을 만나 새로운 사상에 눈을 뜨게 된다. 인혁을 사랑하고 있던 주명은 그가 동학군에 가담하기 위해 집을 떠나자 그를 찾으러 나서 역시 동학군 안에서 인생의 변화를 갖게 된다. 전주화약 후 동학군이 해산되자 집으로 돌아오며 주명은 업동을 노비에서 해방시켜 주고 인혁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지만 일본이 조선에 침략하면서 인혁은 다시 동학군으로 나서게 된다. 주학은 과거시험의 부정부패에 분노해 방황하다가 동학군을 토벌하는 민보군이 되고, 인혁과 업동이 동학군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업동을 구하려고 전투가 일어나는 곳으로 향한다. 인혁은 우금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해산된 동학군의 피신처인 대둔산에서 주명과 업동은 재회하지만 곧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으로 주명은 죽고 업동은 포로가 된다. 주학은 위험을 무릅쓰고 업동을 탈출시킨다. 20년 후 독립투사가 된 주학은 상하이에 독립자금을 전달하러 갔다가 역시 독립가인 최 동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예전의 업동이었다. 두 사람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하며 가슴아픈 이별을 한다.		

캐릭터 설명	업동 : 봄을 닮은 생명력을 가진 소녀로 천주교 박해로 가족을 잃고 노비가 되었다. 주명의 몸종이다. 똑똑하고 생기발랄하며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은 나중에 혼이 날지언정 하고 보는 당돌한 성격이다. 주인집 아들이자 주명의 오빠인 주학을 좋아하지만 신분차이로 이루어질 수 없음에 가슴 아파한다. 전봉준에게 글과 칼춤을 배운 인연이 있다. 주인아씨가 아닌 친구와도 같은 주명을 지키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남편을 찾으려는 주명을 따라 나섰다가 만난 동학군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된다. 날렵함과 용맹함으로 동학군 안에서 남성들과 겨루어도 뒤지지 않는 투사였다. 동학혁명이 실패한 후 중국에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한다. 송주학 : 겨울바람 같이 냉정한 이성과 마음의 소유자. 명망은 있으나 가세가 기울어진 집안을 일으키고 출세하고 싶은 야심가이다.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남자이지만 동생 주명에게만은 다정하다. 부유한 집안의 매부 인혁에게 질투심과 약간의 열등감을 느낀다. 동생의 몸종인 업동에 대한 마음이 상전이나 오빠로서가 아니라 남자로서 여자를 보는 눈빛으로 변해간다. 출세를 해서 업동을 소실로 삼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업동을 향한 그의 마음은 차갑고 냉정한 그를 뜨겁게 달구는 사랑이었다. 과거시험에서 좌절하고 동학군을 진압하는 민보군이 되었으나 대둔산 최후 전투에서 사로잡힌 업동을 풀어주고 그녀에게 한 약속대로 이후 독립운동가로 변신한다. 김인혁 : 여름 태양처럼 뜨거운 마음을 지닌 남자. 학문을 좋아하고 여유로운 성품의 양반가 자제. 사람들을 좋아하고 의리가 있다. 동학사상에 눈을 뜬 후 주변을 보니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는데 탐관오리들의 학정이 계속됨에 분노한다. 전봉준을 만난 후로 학문으로만 알고 있던 동학의 사상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세상을 바꿔야 한다. 같이 살자.'는 생각으로 동학군에 가담한다. 정의를 위해 한 몸 바칠 각오로 헌신하던 그는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남기고 우금치 전투에서 전사한다. 송주명 : 가을 들판처럼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 세상물정을 모르고 순종만 하며 몸종인 업동을 친구처럼 여기고 어려운 집 안 환경에도 찌푸리는 적이 없다. 오빠가 업동을 마음에 둔 것을 눈치 채고 그녀를 데리고 결혼한다. 오빠도 좋아하지만 업동이 소실이 되는 것은 막아야 했다. 외유내강. 주학의 과잉보호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였던 그녀가 정략결혼이었지만 사랑하게 된 남편 인혁으로 인해 변해간다. 인혁을 돕기 위해 위험도 무릅쓰는 주명. 동학이 뭔지는 모르지만 인혁이 꿈꾸는 세상에 함께 하고 싶다. 그저 남편을 위해 동학군을 돕던 그녀는 동학군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과 그럼에도 순수한 조선의 민중들을 보며 점차 강인한 여성으로 변모한다.